

목포권

목포 4년제 대학 “우린 취업난 몰라요”

조선·해운업학과

목포대 23명 대한조선 등 대형조선소 취업
31개 선사 해양대서 박람회 열어 인력채용

조선업과 해운업 호황으로 목포지역 4년제 대학 관련 학과 학생들의 취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 타 대학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인력 스카우트에 나서고 있다.

목포대학교에 따르면 23일 현재 공과대학 선박해양시스템전공 졸업예정자 23명이 대형 조선소에 취업

했다. 회사별로는 대한조선 12명을 비롯해 ▲삼성중공업 5명 ▲대우조선해양 3명 ▲현대중공업 2명 등이 다. 또 세광중공업과 광성조선 등 최근 설립된 중형 조선소에도 9명이 취업했다.

목포대 선박해양시스템 전공 졸업생들은 지난 해에도 96%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목포대와 대한조선 간 산학협정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기본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대한조선에 입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해양대학교에도 국내 굴지의 선사들이 인력 스카우트에 나서고 있다.

목포해양대에서는 지난 22·23일 이틀간 국내외 31개 선사에서 100여 명의 인사담당 직원을 파견, 신입사원을 뽑기 위한 취업박람회가 열렸다.

취업박람회는 지난해까지 20개 선사가 참여했으나 올해는 국내외 31개 선사가 대거 몰려 열기를 더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운회사인 현

대상선사는 3등 항해사와 3등 기관사 72명을 채용하기 위해 5명의 직원을 파견, 지원자를 상대로 면접을 벌였다.

목포해양대 관계자는 “학교 강의실이 부족해 10여개 선사들에게 부스를 만들어 주지 못할 정도로 취업박람회 열기가 뜨거웠다”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적어도 250명이 취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목포해양대는 자격증이나 토익 점수 등 채용 여건을 갖추지 못한 극소수 학생을 제외하고는 내년 초까지 졸업예정자 340여명 대부분이 취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성적 우수학생에 장학금
목포 흥제장학재단

재단법인 흥제교육장학재단이 지난 23일 목포 지역 성적 우수학생들

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흥제장학재단은 이날 목포고 1학년 현진혁군과 해인여고 1학년 박희라양 등 15명에게 각각 55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흥제장학재단은 권이담 전 목포시장이 7년간 받은 봉급 전액으로 설립돼 2003년부터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성적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목포=이상희기자 lsh@

전남, ‘주인없는 섬’ 399개 찾아

첨단 항공사진·지적도면 대조
미등록 토지 등 182만㎡ 등록

전남도가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주인 없는 섬’ 399개를 찾아냈다. 전남도는 지난 2004년부터 영상사진과 지적도면을 대조하는 등 미등록 토지와 토지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조사 결과 공시지가 기준 83

억원에 달하는 1천112필지, 182만2천㎡의 미등록 토지를 등록했으며 1천964개 섬 가운데 규모가 작은 399개 섬이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최첨단 항공사진 측량을 통해 이들 미등록 도서를 지적 공부에 등록했다.

이에따라 바다 낚시의 섬과 휴양의 섬, 동산의 섬 등 전남도가 불우오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

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 도서개발 및 섬가꾸기 사업시

정확한 위치정보제공과 도서지역의 생태보전지구 지정관리가 원활히 이뤄지고 어장 전산화사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남도는 26일 신안 흥도에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영록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공부 등록 시범사업 보고회를 개최한

만가·소포곳...서울 시민에 ‘진도 알리기’

진도군 지산면 소포마을 주민들이 서울에서 흥겨운 민속공연을 펼쳤다. 소포마을 주민 50여명은 지난 2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강강술래와 진도 만가(萬歌), 베를 노래, 소포결군 농악과 남도 소리 등 민속공연 한마당을 열었다. (사진)

이날 시청 앞 광장에서는 또 진도 흥주의 우수성을 알리는 흥주 시음회와 흥미 인절미 만들기, 진도아리랑 따라 부르기 등 부대행사도 열렸으며 진도관광, 특산물 홍보 전시관도 운영됐다. 소포 마을은 주민 스스로 전통 문화를 보존해 왔으며 ‘소포곳’ 특별공연과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아리랑 축제, 흥복 제천시 청풍명월 축제 등 수많은 공연 무대에서 진도를 알렸다.

특히 국내외 관광객 7천여명이 진도를 찾아 소포 전통민속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소포마을은 또 마을 전체(220ha)가 친환경 농업으로 검정 쌀 등의 농산물을 생산, 대도시권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24일 소포 주민들 일췌 한마당 흥주 시음회·특산물 전시관 운영

“여태껏 남의 혼 달래 주었으니 이제 딸이 아버지 닮아 주겠어요”

‘진도 씻김굿’ 무형문화재 고 박병천 선생 씻김굿 열려

“여태껏 남(남) 혼이나 씻어 주시더니~ 이제 이 딸이 아버지 닮아 씻어줄게요”

지난 24일 새벽, 진도군 진도군청 앞 칠마광장에서는 20일 지방으로 타계한 ‘진도씻김굿’ 무형문화재 박병천 선생을 위한 씻김굿이 열렸다.

평생 수많은 방자(亡者)를 위해 굿을 했던 아버지를 위해 딸 미옥(47)씨가 굿을 주재했다. 이날 씻김굿은 고인의 오랜 친구이자 중요문화재 81호인 강준섭(75) 선생의 다시래기 굿에 이어 죽은 자의 혼령을 부르는 ‘인당’으로 엄숙하게 시작됐다.

하늘님을 모시는 ‘제석굿’과 망자의 넋을 불러 극락으로 인도하는 ‘지전춤’에 이어 ‘넋올리기’와 ‘고풀이’가 이어졌다. 굿은 망자의 육신을 대신한 영등을 물로 씻어내며 절정에 달했다.

“이제 모든 근심, 걱정 훌훌 버리고 극락왕생 하옵시오, 아버지” 망자의 혼을 씻으며 딸 미옥씨는 서럽게 울었다. 고인의 넋을 달래러 전국에서 모여든 50여명의 ‘산자’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24일 진도군청 앞에서 열린 ‘고 박병천 선생 씻김굿’에서 고인의 딸 미옥(맨 오른쪽)씨가 망자의 원혼을 달래는 장례 의식을 주재하고 있다.

슬픔을 함께 했다. 이날 굿은 혼을 극락왕생으로 인도하는 ‘길닦음’과 혼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종헌’으로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굿 중간에는 판소리 명창 이임례 선생 등 무형문화재와 고인이 재직했던 대불대 전통연희학과 학생들의 북춤 공연 등이 펼쳐졌다. 진도군청 김미경 학예연구사는 “씻김굿은 죽음의 의식을 한 차원

높여 축제의식으로 승화시킨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라며 “박병천 선생은 씻김굿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신 우리 전통문화 예술의 큰 별이었다”고 회고했다. 고 박병천 선생은 1932년 진도 지산면에서 태어나 198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 씻김굿’ 기·능보유자로 지정됐으며 대불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복지목포

목포시는 복지총괄과 복지행정혁신, 지역사회복지 계획, 기초 생활보장, 자활사업, 노인복지 등 총 9개 분야 가운데 복지총괄, 자활사업,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시상식은 다음달 6일 부산 복지종합평가대회에서 열린다. 한편 목포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실시한 자활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지난 달 행정자치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주민복지 서비스 관련 시상상을 휩쓸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진도, 남은 음식 싸주기 전개

진도군이 자원반비와 환경유범 방지를 위해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진도군은 친환경 포장 용기 1천개를 제작해 식당에 지원했으며, ‘좋은 식탁’ 홍보 스티커를 배부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Lists various regions and their corresponding phone numbers.

Large advertisement for movies and theaters. Includes sections for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엔터시네마', '콜롬버스 시네마', '씨너스 전대', '무등극장', and '제일시네마'. Each section lists movie titles, showtimes, and theater addresses.